



쿠알라룸푸르 내 주류 판매 제한 조치

말레이시아 정부, 수도 내 주류 판매규제 조치

지난 11월 1일부터 쿠알라룸푸르(Kuala Lumpur) 시청(DBKL)은 쿠알라룸푸르에서의 주류 판매를 제한하는 주류 판매규제 조치(Alcohol ban)를 발령하여 이에 따른 조치가 시행되었다. 해당 규제안은 지난해 11월에 처음 발표되었으며 당초 2021년 10월부터 적용 계획이었으나 세부지침에 대한 연구와 마무리를 위해 11월 1일 적용으로 연기됐다.

새 규제안에 따르면 쿠알라룸푸르 내의 식료품점, 편의점, 전통약재상에서는 위스키 등의 높은 도수의 주류(Hard liquor)를 판매할 수 없으며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의 맥주 판매만 허용된다.

쿠알라룸푸르 내 주류 판매제한 조치 세부내용

판매주류 제한	- 식료품점, 편의점, 전통약재상에서 고도수 주류(Hard liquor) 판매 금지 - 고도수 주류는 주류 전문 도매점 및 대형유통매장에서만 판매 가능
판매시간 제한	- 주점 및 음식점: 오전 10시 ~ 자정 - 도매점(주류전문판매점): 오전 7시 ~ 오후 9시 - 소매점(대형유통매장, 편의점 등): 오전 7시 ~ 오후 9시
기타 제한사항	- 경찰서, 예배당, 학교, 병원 주거시설 100m 내 주류 판매 금지 - 모든 주류 취급 사업장은 사업장 내부에 주류 판매 라이선스를 상시 비치하고 출입구에 청색(사업장 내 음주 가능) 및 황색(사업장 내 음주 불가, 테이크아웃만 가능) 라이선스 QR코드 부착 의무 21세 미만 방문객 및 무슬림에게 주류 판매 금지

말레이시아 주류시장 특성 및 동향

3,300만의 인구 중 약 62%가 이슬람 교도로 이뤄진 말레이시아의 주요 주류 소비층을 살펴보면, 인구의 약 25%를 차지하는 중국계와 약 11%를 차지하는 타밀(인도)계로 이뤄져 있다. 말레이시아 주류 시장규모는 최근 수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전년도인 18.6억 달러(약 2조 2천억 원) 대비 약 17% 감소한 15.5억 달러(약 1조 8천억 원)를 기록하였으며 주종별 시장 점유율은 맥주(60%), 와인(25%), 증류주(12%), 기타(3%) 순으로 나타났다. 향후 5년간 연평균 7.8%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현지 소비자들은 낮은 가격대에 높은 접근성을 이유로 맥주를 주로 소비하는 경향으로 고품질의 맥주에 대한 수요 또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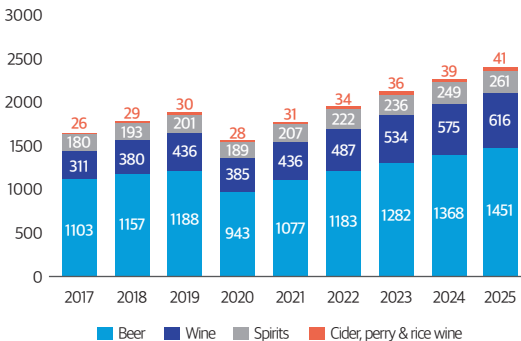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최근에는 전문 바나 주점을 통해서만 유통되던 수제맥주를 일반 유통매장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고급화 전략과 다양한 시음 이벤트 등을 통해 현지 소비자들의 와인에 대한 인지도 역시 크게 늘었으나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한 가계소득 감소로 인해 고급 주류 구매 감소로 큰 감소폭을 보였다.

말레이시아에 진출한 한국 소주

K-드라마 등 최근 급부상하는 K-콘텐츠의 인기로 힘입어 한식당과 한국 슈퍼마켓 등 한인사회 중심으로만 유통되던 한국 소주가 현지 대형유통매장, 편의점, 주류 소매점 등 일반 식료품점이나 주류 전문매장에 진출하며 전보다 쉽게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국가 봉쇄령에 해당하는 이동제한령(Movement Control Order)이 적용되던 '20년 말말레이시아 소주 수출액은 1.55백만 달러를 달성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러한 인기 요인에는 한류 콘텐츠의 확산, 와인 등 타 주류 대비 저렴한 가격, 자몽 및 청포도 등 저도수 과일 맛 소주를 통한 적극적인 마케팅 등을 꼽을 수 있다.

말레이시아 주류 시장규모 및 전망



말레이시아 소주 수출규모

(단위: 천 달러)

연도	2019	2020	2021(10월 기준)
금액	1,009	1,550	1,117

현지 레스토랑 및 유통매장에 판매중인 소주



자료 kfoodie.com, MAMA Q Facebook



작성자 자카르타지사 최동은

Key Point

이슬람교가 국교인 말레이시아에서 샤리아법에 의해 무슬림에 대한 주류 판매가 불법이지만 실질적인 제약은 없는 상태다. 총 인구의 25%를 차지하는 화교계층이 주류의 주 소비층에 해당하지만 최근 젊은층을 중심으로 주류 소비가 늘어남에 따라 정부는 주류 판매 규제 카드를 빼들었다. 이러한 주류 판매 제한으로 인해 지난해부터 현지 소비자들 사이에서 급격히 인기를 끌고 있는 소주 판매량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 관련 업계에선 이와 같은 상황을 인지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